

문화

무지개빛깔 음악 홍성지 작곡발표회

대담하면
서도 다채로
운 음악적
색채로 해외
언론으로부터
'무지개
빛깔의 맑고
산뜻한 음



악' (BBC 뮤직 매거진), '진정
빛을 발하는 음악' (광파르 매거
진)이라는 격찬을 받고 있는 한
국 출신 현대음악 작곡가 홍성지
(사진)의 작곡 발표회가 21일 오후
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열
린다.

한양대 졸업 후 영국 왕립음악
원에서 석사학위를, 요크대학교
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성지는
아시아와 미국, 유럽에서 한 해
여 60여 회의 음악회를 가진 정
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
신예 작곡가. 그의 작품은 하버
드대의 프롬음악재단, 마타페스
티벌,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위촉
받았고 아시아현대음악제, 베니
스뮤직페스티벌 등 주요 국제음
악제에서 연주되고 있다.

발표회에서는 다양한 편성의
실내악 곡들과 가야금 협주곡,
그리고 전자음악이 연주된다.

홍성지의 2006년작 '쉐이즈
오브 레인드롭스' (Shades of
Raindrops)와 2005년작 '블
랙 애로우' (Black Arrow) '디
센딩 플로우' (Descending
Flow)가 아시아 초연된다. 전
석 2만원. (02)3474-8315

노현기자